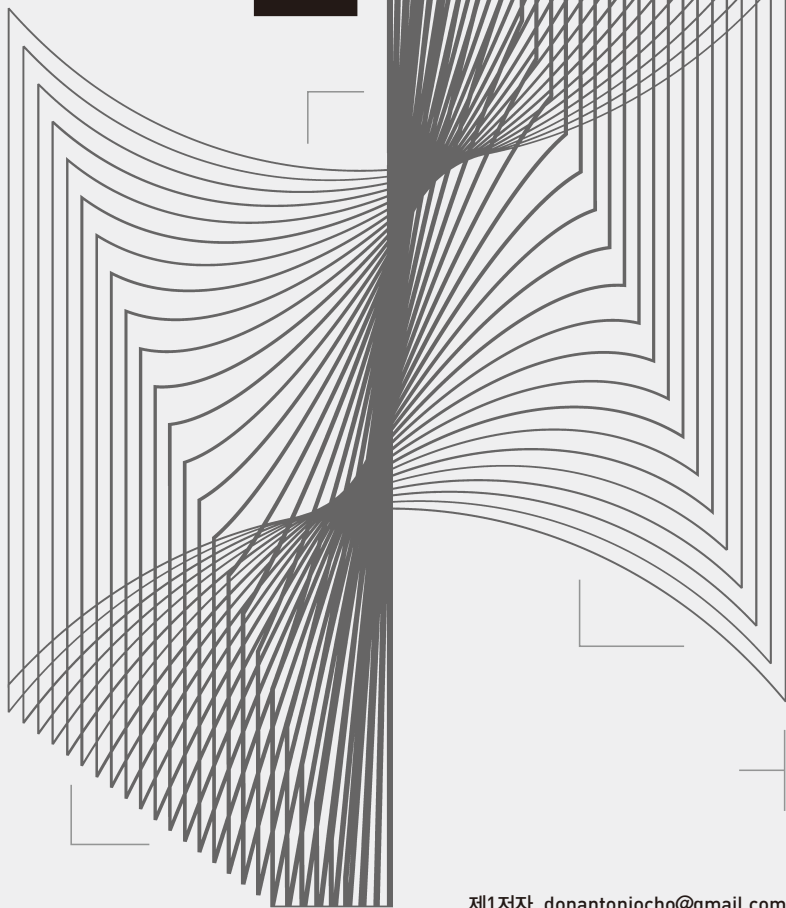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donantoniocho@gmail.com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칼케돈 문법

국제신학위원회 문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를 중심으로

조동원(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부교수·교의신학)

<https://doi.org/10.21738/JHS.2026.8.59.485>

I. 서론

■ 2026년 3월 4일, 국제신학위원회는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사유하다”라는 문헌을 발표하였다.¹ 문헌의 설명에 따르면, 제목의 물음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로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21항)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그 가능성 위에서 인간의 증강을 넘어 재설계와 대체까지 전망한다. 사목현장 반포 60주년(1965-2025)을 계기로 준비된 이 문헌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다시 사유하려는 가톨릭교회 차원의 첫 종합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물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은 교회가 이 문헌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 아니다. 이미 5세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두고 갈라졌고, 칼케돈 공의회(451년)는 네 개의 부정 부사로 그 물음

* 이 글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1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Quo vadis, humanitas? Pensare l'antropologia cristiana di fronte ad alcuni scenari sul futuro dell'umano*, 이하 QVH로 약칭하고 본문 괄호 안에 항 번호로 인용한다. 공식 한국어 번역은 아직 없으며, 본고의 인용은 이탈리아어 원문에서 필자가 옮긴 것이다.

에 답하면서, 인간 본성이 하느님과과의 결합 안에서 보존되고 들어 올려진다는 사실을 지켜 내었다. 20세기에 교회는 급변하는 현대 세계 앞에서 사목현장을 반포하였고, 그 22항은 칼케돈의 언어를 이어받아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제 QVH가 인간의 기술적 자기 초월이라는 새로운 물음 앞에서 사목현장 22항을 자신의 절정부에 인용하면서 같은 길을 걷는다.

본고는 이 계보 위에서, 칼케돈 신경의 네 부정 부사, 곧 ‘혼합되지 않고’(ἀσυγχύτως), ‘변화되지 않고’(ἀτρέπτως), ‘분리되지 않고’(ἀδιαίρετως), ‘나뉘지 않고’(ἀχωρίστως)를 해석학적 열쇠로 삼아 QVH를 읽고자 한다. 필자는 앞선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이 네 부사가 사목현장 22항의 지평 위에서 인간의 관계적 구조를 밝히는 문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² 이 문법으로 문헌을 읽으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문헌은 칼케돈의 식별 문법을 수행하고 있다. 문헌이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을 판별하는 기준, 곧 그 초월이 인간을 보존하는가 아니면 대체하고 폐기하는가 하는 기준은 칼케돈이 위격적 일치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기준과 같은 구조를 지니며, 문헌은 본문에서 칼케돈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대목마다 이 문법대로 말한다. 둘째, 문헌은 이 문법을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보완한다. 칼케돈 정식은 참된 결합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줄 뿐, 그 결합이 어째서 인간을 완성하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문헌은 그 대답을 피조물에 반영된 삼위일체적 관계의 논리에서 가져오는데(132항), 위격적 일치 자체가 삼위일체 안의 사건이므로 이 보완은 칼케돈을 떠나

2 김민섭·조동원, 「칼케돈 신경의 인간학적 재해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현장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58(2026), 137~178쪽.

는 일이 아니라 그 뿌리에 이르는 일이다. 앞의 것이 이 문헌을 읽는 열쇠라면, 뒤의 것은 이 문헌이 칼케돈 전통에 되돌려주는 기여라 할 수 있다.

QVH가 발표된 지 아직 반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물다. 지금까지의 수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문헌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지면을 통하여 내놓은 장별 해설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헌의 구조와 의도를 소개하는 성격을 지닌다.³ 다음으로, 문헌을 레오 14세의 첫 회칙 「Magnifica Humanitas」의 인간학적 준비 작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교회 언론의 보도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문헌이 보존의 신학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⁴ 요컨대 지금까지의 수용은 소개와 첫 반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문헌 전체를 하나의 해석학적 틀 아래에서 통독하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신학적 응답 자체는 국제 학계에서 이미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다.⁵ 국내 학계에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여러 편 축적되어 있다.⁶ 그러나 QVH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

3 문헌 발표 직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집필한 장별 해설을 연재하였다. 제1장에 대해서는 R. Huetter, “La vera posta in gioco,” *L'Osservatore Romano*, 2026년 3월 7일; 제4장과 결론에 대해서는 C. M. Galli, “La divinizzazione, piena umanizzazione in Cristo,” *L'Osservatore Romano*, 2026년 3월 30일 등을 참조.

4 P. Gamberini, “Quo vadis, humanitas? Ubi est Teilhard?,” *SettimanaNews*, 2026년 3월 23일. <https://www.settimananews.it/teologia/quo-vadis-humanitas-ubi-est-teilhard/>

5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R. Cole-Turner (ed.), *Transhumanism and Transcendence: Christian Hope in an Age of Technological Enhancement*,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1, 특히 그 안의 T. T. W. Daly, “Chasing Methuselah: Transhumanism and Christian Theosis in Critical Perspective,” pp.131~144; R. Cole-Turner, “Theosis and Human Enhancement,” *Theology and Science*, 16/3(2018), pp.330~342; M. Burdett, *Eschatology and the Technological Future*, London: Routledge, 2015; T. Peters, “The Soul of Trans-Human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44/4(2005), pp.381~395.

6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라. 이용주,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신학적-비판적 고찰: 신학적 인간

구는 필자가 아는 한 아직 없다. 본고는 그러므로 이중의 작업을 수행한다. 그것은 바로, 문헌의 구조와 내용을 국내 학계에 처음으로 상세히 소개하는 일과 더불어, 그 소개가 단순한 요약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의 물음, 곧 문헌의 식별이 어떤 문법 위에서 작동하는가 하는 물음을 끝까지 밀고 가는 일이다. 칼케돈의 네 부정 부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는 문헌 밖에서 가져온 틀이 아니라 문헌 자신이 그 절정부에서 인용하는 사목헌장 22항을 거슬러 올라가 얻은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먼저 네 부정 부사와 그 인간학적 확장을 간추리고(II장), QVH의 구조와 진단을 분석한 다음(III장), 네 부사를 문헌의 식별에 적용하고 그 문법이 삼위일체적 논리로 완성되는 지점을 확인할 것이다(IV장).

II. 칼케돈 문법과 그 인간학적 확장

1. 칼케돈 신경의 네 부정 부사

칼케돈 공의회(451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독특한 방식으로 답하였다. 공의회의 교의 결정문은 그리스도를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ἀσυνγχύτως) 변화되지 않으시며(ἀτρέπτως) 분리되지 않으시고(ἀδιαρέτως) 나뉘지 않으시는(ἀχωρίστως) 분”으로 고백한다.⁷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무엇인지를 서술하

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2019), 293~324쪽; 백충현,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에서의 삼위일체」, 『한국조직신학논총』, 57(2019), 171~199쪽.

7 H. Denzinger(하인리히 덴칭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이성호 외 5명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301~302항. 이하 DH로 표기.

는 대신, 무엇이 아닌지를 네 번 부정하는 방식이다.

이 네 부정 부사에는 각각 표적이 있었다. 앞의 두 부사가 겨냥한 것은 에우티케스인데, 그는 육화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이, 마치 바닷물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신성 안으로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보았다. 뒤의 두 부사가 겨냥한 것은 네스토리우스로, 그에게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나란히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⁸ 공의회는 두 오류를 모두 배격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정답을 그려 넣지는 않았다. 라너가 칼케돈 정식을 ‘경계 정식’(Grenzformel)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⁹ 네 부사는 신비의 내용을 서술하지 않으며, 다만 오류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표시할 뿐이다. 이처럼 공의회는 “철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의 포기”를 통하여 오히려, 인간의 언어에 담기지 않는 신비를 보존하였다.¹⁰

공의회가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 것은 단지 사변을 절제하기 위 해서가 아니었다. 사실 여기에는 인간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 에우티케스의 말대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사라진다면, 하느님 말씀이 수용하신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구원받을 것이 남지 않는다. 반대로 네스토리우스의 말대로 두 본성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면, 우리의 본성은 끝내 하느님의 생명에 닿지 못한다. “인성이 신성의 차원에까지 올림 받았다.”¹¹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인성이 인성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보존), 동시에 신성과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결합). 혼합의 배제가 앞의 조건을 가리킨다면, 분리의

8 두 이단과 공의회에 대해서는 P. Camelot(피에르 토마 카멜로), 『에페소·칼케돈 공의회』, 황치현 역,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0, 200-207쪽; A. Grillmeier(알로이스 그릴마이어),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김형수 외 옮김, 가톨릭출판사, 2023, 1323~1339쪽을 참조.

9 참조: K. Rahner·W. Thüsing(칼 라너·빌헬름 튀징), 『그리스도론: 조직신학적 및 주석신학적 탐구』, 조규만·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136~137쪽.

10 K. Schatz(클라우스 샤텔), 『보편공의회사』, 이종환 역, 분도출판사, 2005, 79쪽.

11 노성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신학전망』, 147(2004), 176쪽.

배제가 뒤의 조건을 지킨다.¹²

교부들은 이 신비를 신화(神化, deificatio)라고 불렀다. 신화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그치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육화 이후에도 온전한 인성으로 남아 있듯이, 인간은 하느님과 결합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¹³ QVH가 트랜스휴머니즘의 자기신격화에 맞세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화 이해이다(161항).

2. 사목헌장 22항과 유비의 지평

칼케돈 정식을 현대의 인간학적 물음과 연결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사목헌장 22항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고 선언한다.¹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곧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2항은 칼케돈의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분 안에 수용된 인간 본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assumpta, non perempta*),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도 고상한 품위로 들어 올려졌다”고 말하고, 나아가 “하느님의 아드님은 강생을 통하여 어느 모로는 당신 자신을 모든 인간과 일치시켰다(*cum omni homine quodammodo Se univit*)”고 가르친다.¹⁵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유일회

12 참조: O. González(올레가리오 곤잘레스), 『그리스도론: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윤주현 옮김, 가톨릭출판사, 2023, 513쪽.

13 참조: W. Kasper(발터 카스퍼),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옮김, 분도출판사, 2000, 316쪽; A. Amato(안젤로 아마토), 『예수 그리스도』, 김관희 옮김,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512쪽.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Gaudium et Spes*), 22항. 이하 ‘사목헌장’으로 약칭한다.

15 칼케돈 전통의 정식 “인성이 수용되었으나 소멸되지 않았다”(natura humana assumpta, non perempta)가 사목헌장 22항에 수용된 점, 그리고 “일치시켰다”(Se univit)가 키릴루스와 에페소 공의회 이래 위격적 일치를 표현해 온 동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A. Begasse de Dhaem, “Christologie

적 사건이 모든 인간과 관련된 일이 된 것이다.

사목현장은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맺는 관계의 형식을, 인간이 하느님 및 타자와 맺는 관계에 유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주었다.¹⁶

3. 네 부정 부사와 관계의 문법

이 지평 위에서 선행 연구는 네 부사를 관계의 문법으로 읽었다.¹⁷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또 타인과 아무리 깊이 결합하더라도 그 관계가 자기 자신의 소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저 홀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자기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기 초월이란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자와 결합하는 것이며, 자기를 지우는 것도, 타자를 흡수하는 것도, 홀로 닫히는 것도 아니다. 신학자 루이스 라다리아가 사목현장에서 읽어낸 두 표현이 이를 요약해 준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온전한 인간’(perfectus homo)이시기에, 인간이 도달할 완성을 보여주는 ‘완전한 인간’(homo perfectus)이 되신다. “온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누구나 더욱 인간답게 된다.”¹⁸

et sotériologie de Gaudium et spes 22: Un modèle de théologie unifiée,” *Gregorianum*, 95/1(2014), pp.5~21 참조.

16 사목현장 22항이 그리스도론과 인간학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을 정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L. Ladaria, *Antropologia teologica*, Roma: GBP, 2011, pp.109~202; J. Xavier, “Theological Anthropology of Gaudium et Spes and Fundamental Theology,” *Gregorianum*, 91/1(2010), pp.128~130을 참조.

17 김민섭·조동원, 「칼케돈 신경의 인간학적 재해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현장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58(2026), 137~178쪽.

18 참조: 조동원,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고 구원되며 완성된 인간: 루이스 라다리아의 ‘그리스도론’ 인간학」, 『인간연구』, 41(2020), 235~246쪽. 관련 대목은 L. Ladaria, *Jesucristo, salvación de todos*, Madrid:

물론 이 독해는 일종의 유비이다. 그리스도 안의 위격적 일치는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며, 인간들 사이의 관계나 인간과 하느님의 은총적 결합이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사목현장이 “어느 모로는”(quodammodo)이라는 부사로 일치의 방식을 조심스럽게 열어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또한 이 문법은 인간학의 차원에서도 경계 정식의 성격을 유지한다. 곧 참된 초월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기보다, 어떤 초월이 인간을 훼손하는지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선행 연구에서 실제로 논의를 이끈 것은 첫째 부사와 넷째 부사, 곧 ‘혼합되지 않고’와 ‘나뉘지 않고’였다. ‘변화되지 않고’와 ‘분리되지 않고’는 각자 짝을 이루는 부사에 기대어 있었고, 사목현장과의 대화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QVH가 다루는 물음들 앞에서는 이 두 부사도 고유한 역할을 요구한다. 인간 본성을 결합으로 보고 그 재설계를 기획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화되지 않고’(ἀτρέπτως)가, 자기의식을 몸에서 떼어 내어 다른 매체로 옮기려는 기획에 대해서는 ‘분리되지 않고’(ἀδιαρέτως)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행 연구가 개인의 자기 폐쇄를 겨냥하여 읽었던 ‘나뉘지 않고’(ἀχωρίστως)는, 인류가 강화된 부분과 버려진 부분으로 갈라지리라는 전망 앞에서 사회적 차원의 역할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III.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의 구조와 인간학적 진단

1. 문헌의 배경과 구조: 사목현장 반포 60주년과 네 개의 키워드

QVH는 국제신학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연구의 결실로서, 2025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레오 14세의 재가를 얻어 2026년 3월 4일 공포되었다.¹⁹ “인간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사유하다”라는 부제가 이 문헌의 성격을 요약해 준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목현장 반포 60주년(1965-2025)이다. QVH는 사목현장을 “이 수준의 문서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인간에 대한 전망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문헌으로 평가하면서,²⁰ 자신의 작업을 그 연장선 위에 놓는다.

문헌의 구조는 네 개의 키워드를 따라 짜여 있다.²¹ 곧 발전(sviluppo), 소명(vocazione), 정체성(identità), 드라마적 조건(condizione drammatica)이다. 1장은 기술 발전 앞에 선 인간을, 2장은 소명으로서의 삶을, 3장은 선물이자 과제인 정체성을, 4장은 죄와 은총의 드라마를 다루며, 결론의 제목은 “참된 인간화로서의 신화(神化)의 선물”이다.

네 키워드 가운데 ‘정체성’은 국제신학위원회의 이전 문헌들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범주이다.²² 문헌은 그 이유를 이

19 QVH, 예비 노트(Nota preliminare) 참조.

20 QVH, 7항.

21 QVH, 8항.

22 QVH, 11항 및 각주 8.

렇게 설명한다. 기술과학의 진보가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절대적 자기결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전적 물음이, 나는 누구이고자 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바뀐 상황에서, 문헌은 이 새로운 물음에 응답하고자 한다.

2. 유한성 앞의 인간: 두 사조에 대한 진단

문헌의 초점은 트랜스휴머니즘 및 포스트휴머니즘과의 대결이지만, 문헌은 이 사조들을 곧바로 비판하지 않고 인간 실존의 분석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함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며, 따라서 그 유한함을 어떻게든 마주해야 하는 존재이다. 문헌에 따르면 그 앞에는 네 갈래 길이 열려 있다. 유한성을 절대화하는 길, 허구적인 무한 속으로 유한성을 벗어나려는 길, 유한성과 타협하는 길, 그리고 유한과 무한의 긴장을 (선물로 받을) 완성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살아내는 길이다.²³ 어느 길을 택하든, 인간은 유한한 조건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무조건적인 것’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이 오래된 긴장이 오늘의 조건 속에서 취한 새로운 형태이다. 문헌의 정의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노화와 죽음까지 포함한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을 ‘너머’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려는 철학 운동으로서, “순진하면서도 오만한 주재념음(presunzione)의 실존적 표현”이

23 QVH, 13항. 문헌은 이 실존 분석의 전거로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과 『불안의 개념』을 든다(같은 항 각주 11).

다.²⁴ 포스트휴머니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인간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유동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문헌은 이를 “인간에 대한 근본적 평가절하에서 출발하는, 현실로부터의 도피(fuga)의 실존적 표현”으로 진단한다.²⁵ 13항의 구분에 대응시키면, 두 사조는 허구적 무한으로 유한성을 벗어나려는 길에 해당한다.

주목할 것은, 문헌이 초월의 욕망 자체를 병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전히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현재의 조건을 넘어서려는 이 욕망은 인간 본성에 구성적인 긴장을 이룬다”(23항).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그 방식이므로, 문헌은 초월(superamento)의 두 의미를 구분한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너머’를 향한 개방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인간의 대체 또는 폐기를 초래하는 부정적 의미이다.²⁶ 긍정적 의미의 초월을 가리키기 위하여 문헌이 불러오는 것은 단테가 천국편 첫머리에서 만든 말 ‘trasumanar’, 곧 은총에 의한 신화(神化)의 경험이며, 문헌은 이를 “너희는 죽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리라”(창세 3,4-5)는 유혹과 대비시킨다.

3. 기술이 바꾸어 놓은 네 가지 관계

문헌은 1장에서 기술 발전의 인간학적 결과를 네 가지 근본 관계, 곧 자연 환경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기술이 더 이상 도구가 아

24 QVH, 14항.

25 QVH, 15항.

26 QVH, 23항. 긍정적 초월의 전거로 문헌이 드는 단테의 표현은 『신곡』 천국편 제1곡 70행의 ‘trasumanar’이다(24항). 문헌에는 “transumanar”라고 표기되어 있다.

니라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의 활동과 관계를 구조화하는 진정한 삶의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33항).

네 관계 각각에서 문헌이 짚어 내는 변화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소통의 유례없는 보편화가 오히려 유대의 약화와 짝을 이루고(35~45항), 몸과의 관계에서는 몸이 존재의 방식이기를 그치고 소유와 개조의 대상이 되어 가며(47항),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술 자체가 성스러움의 매개자 노릇을 하려 든다(48~50항). 이 진단들의 세목은 네 부정 부사와 함께 IV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본고의 관심사와 특히 가까운 한 가지만 짚어 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진단에서 문헌은 앎의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데이터를 해석할 이론을 세우는 대신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으로 앎이 대체되어 갈 때, “가장 큰 위험은 인간 지식의 지평이 AI가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상응하는 앎의 형태들로 축소되는 것이다”(46항). 의미에 대한 물음, 윤리적 물음, 나아가 철학적·신학적 물음이 부적합한 것으로 배제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AI가 사실상 무엇을 아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46항). 문헌은 이미 41항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꿈이 몸 안에서 체험되고 상황 지어진 지성을 결여한 “몸도 한계도 유대도 도덕 감각도 없는” 앎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진단들이 수렴하는 곳이 61항이다. 문헌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심성에서 ‘신영지주의’(neo-gnosticism)의 특징들을 읽어낸다. 이 사조들은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모든 의존과 한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며, 그리하여 그를 몸으로부터, 우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역사로부터 분리시킨다.”²⁷

27 QVH, 61항. ‘신영지주의’에 대해선 신앙교리성 서한 「Placuit Deo」(2018), 3항 참조.

이어지는 62항에서 문헌은 근본 물음을 던진다. “이 제안은 인간을 그 본질에 있어 변형(trasforma)시키는가, 아니면 훼손(deforma)하는가? 우리는 예외적인 인간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참된 인간에 대한 예외의 형태들에 이를 것인가?” 그리스도교의 답도 같은 항에 담겨 있다. 인간은 그 통일성과 통합성을 보증하는 특정한 형상(forma)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차원에서 그것은 질료를 하나의 살아 있는 몸으로 통일하고 조직하는 불멸의 영혼이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척도와 완성을 발견한다.”²⁸

4. 문헌의 그리스도론적 절정: 대체되지 않고 수용된 인류

문헌 4장의 제목은 “긍정되고 구원되고 들어 높여진 인류”이며, 그 첫 항이 문헌 전체의 답을 요약한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을 뛰어넘는 진화적 도약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실현하는 모험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구원의 관계”이고, 구원받은 인류란 “하느님의 선물로서 존중되는, 곧 대체되지 않는(non sostituita) 인류”이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 ‘온전한 초월’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수용하고(assunzione) 정화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실현”하기 때문이다(128항). 수용과 보존과 대체의 거부라는 이 언어는, 사목헌장 22항이 칼케돈에서 물려받은 정식, 곧 “인성이 수용되었으나 소멸되지 않았다”(assumpta, non perempta)를 그대로 잇고 있다.

이 계승은 문헌 자신이 명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문헌은 그리스도론적 절정부인 148항과 149항에서 사목헌장 22항을 연이어 직접

28 QVH, 62항.

인용한다.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어느 모로 결합시키셨다.” 문헌은 자신의 인간학이 도달하는 정점을 사목헌장 22항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다.

147항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는 일은 인간을 흡수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전달하는 신적인 것을 빈곤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두 자유의 만남이니, 하느님께서 신화(divinizza)하시는 바로 그때에 인간은 인간화(umanizza)하는 것이다.”²⁹ 150항은 더 단호하다. “그리스도의 새로움이 이미 앞질러 통합하지 않은 ‘트랜스’(trans)나 ‘포스트’(post)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 넘어설 수 없는 새로움 전체에 있어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³⁰ 그리고 결론부의 161항이 문헌의 최종 답을 내놓는다. “그리스도교의 선포는 인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trans) 합당한 길을, 오직 하느님께만 가능한 신화(theosis)에서 식별한다. 그것은 트랜스휴머니즘적 자기신격화와 정확히 반대이다.”³¹

QVH는 문헌 전체에서 칼케돈 공의회를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결정적인 대목마다 칼케돈의 언어가 나타난다. 완성은 흡수가 아니라는 것, 완성이 하느님과의 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인간의 대체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이 그러하며, 이 모든 것이 사목헌장 22항의 명시적 인용 위에 서 있다. 네 부정 부사가 이 문헌을 읽는 데에 적합한 틀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9 국제신학위원회, 『신학, 그리스도론, 인간학』(1981).

30 QVH, 150항.

31 QVH, 161항.

IV. 네 부정 부사와 인간 초월의 식별

1. 대체되지 않는 인류: 문헌의 기준과 칼케돈의 기준

QVH는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을 평가하면서 시종일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곧, 그것이 추구하는 초월이 인간을 보존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폐기하는가 하는 기준이다. 문헌은, 자신과 현재의 조건을 넘어서려는 욕망 자체는 인간 본성에 새겨진 것으로 긍정하면서도, 인간 본성의 ‘너머’를 향하여 열리는 초월과 인간의 대체 또는 폐기(sostituzione o soppressione)를 초래하는 초월을 구분한다(23항). 이 구분은 한 번 언급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문헌에 따르면, 인간화의 드라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의 대체나 폐기라는 어떤 형태로도 해결될 수 없으며”(16항), 구원받은 인류란 대체되지 않는(non sostituita) 인류이다(128항). 결국 문제는 초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 곧 대체와 폐기에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이미 오래전에 마련해 둔 것이다. 칼케돈이 혼합과 변화를 배제한 것은, 신성과의 결합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인성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분리와 나뉘음을 배제한 것은, 인성이 보존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성과 참으로 결합할 때에야 비로소 들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QVH가 인간 초월에 적용하는 기준과 칼케돈이 위격적 일치에 적용한 기준은 동일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문헌이 칼케돈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절정부에 이르러 수용, 흡수의 거부, 대체의 거부라는 칼케돈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물론 정신 업로드는 두 본성의 결합이 아니며, 트랜스휴머니즘이 그리스도론의 이단인 것도 아니다. 네 부사가 제시하는 것은, 이

사조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꿈꾸는 인간 초월이 결국은 인간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³²

문헌은 비록 칼케돈의 네 부사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문헌의 진단이 일관되게 두 갈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한성 앞에서 인간이 빠져드는 그릇된 길도 돌이고(허구적 무한으로의 도피와 유한성의 절대화, 13항), 발전을 위협하는 유혹도 돌이며(기술을 통하여 자신을 창조하려는 꿈과 개인주의적 시각, 22항), 두 사조에 내려진 최종 진단도 오만과 도피, 둘이다(14-15항). 칼케돈의 네 부사 역시 본래 둘씩 짝을 이루어 두 가지 오류를 겨냥하였다. 그러므로 혼합과 변화의 쌍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무한이 되고자 하는 시도, 곧 자기신격화와 본성의 재설계를 읽고, 분리와 나뉘는 쌍으로는 몸과 유대를 끊어 버리는 데에서 해방을 찾으려는 시도를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두 쌍이 현상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사이보그처럼 혼합인 동시에 분리인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2. 혼합과 변화: 자기신격화와 본성의 재설계

문헌이 요약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꿈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기술의 힘으로 죽음마저 넘어 신적인 지위에 오르려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 본성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기획이다. 앞의 것은 칼케돈이 배제한 혼합의 오류에, 뒤의 것은 변화의 오류에 대응한다. 그리고 둘은 별개의 시도가 아니라,

32 QVH 자신이 이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61항은 두 사조에서 신영지주의의 특징을 읽어내면서도, 이러한 규정이 고대 영지주의와 “유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를 함께 다룬 신앙교리성 서한 「Placuit Deo」(2018), 3항을 전거로 들고 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한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시도가 지닌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 하나는 자기신격화이다. 문헌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내재적 불멸”을 “순진하면서도 오만한 주제넘음의 실존적 표현”으로 진단하고(14항), 그 원형을 창세기의 유혹에서 찾는다. “너희는 죽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리라”(창세 3,4-5)는 뱀의 약속과, 은총으로 주어지는 신화(divinizzazione) 사이에는 깊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24항). 같은 진단은 교도권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대목에서도 반복된다. 인격의 발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고자 할 때 타락한다(28항).³³ 나아가 문헌은 이 꿈이 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기술이 스스로 성스러움의 매개자가 되는 디지털 종교 안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은 인간의 영적 열망에 기술적 성능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가상의 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49항).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에우티케스의 오류를 기억한다면 이 진단의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에우티케스는 인성이 신성 안으로 흡수된다고 보았고, 칼케돈 공의회는 그 길에서는 구원받을 인간이 남지 않기에 이를 거부했다. 자기신격화는 방향이 반대이다. 위로부터의 흡수가 아니라, 인간이 아래로부터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구조는 같다. 유한과 무한의 구별이 지워지는 곳에서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인간 쪽이기 때문이다. 자기신격화의 기획 안에서 인간은 신화(神化)의 주체이자 동시에 그 재료가 되며, 재료가 된 인간은 기획이 성공하는 쪽 그 만큼 소모된다. 문헌의 결론이 이 점을 정확히 짚는다. 신화(theosis)는 “오직 하느님께만 가능한” 일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휴머

33 베네딕토 16세, 화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68항.

니즘적 자기신격화의 정확한 반대”이다(161항).

자기신격화의 꿈은 구체적인 기획으로 내려오면 본성의 재설계가 된다. 문헌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너머’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자 하며(14항), 그 출발점에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조건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놓여 있다(57항). 문헌은 이 판단을 “현실의 삶에 대한 원한(risentimento)”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불의한 조건과 구조를 바꾸려는 마땅한 투쟁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라고 선을 긋는다(57항). 그 거부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몸이다. 몸은 마음대로 증강하고 개조하고 다시 빚을 수 있는 생물학적 재료로 간주되고, 사람은 자기 몸으로 존재하는 대신 몸을 소유하게 되며, 이상적인 몸을 숭배하면서 정작 실제의 몸은 사랑하지 않게 된다(47항). 문헌은 이에 맞서 단순한 명제를 세운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창조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함을 뜻한다”(117항).³⁴

‘변화되지 않고’(ἀτρέπτως)가 비추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칼 케톤에서 이 부사는, 말쑥이 육신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육신이 신성으로 변한 것도 아니며, 두 본성이 결합 안에서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지켰다. 이를 인간학의 차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들어 높여짐은 본성의 변조를 거치지 않는다. 은총은 본성을 갈아 치우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³⁵ 트랜스휴머니즘의 전제는 정확히 그 반대여서, 상승은 오직 본성의 개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본성은 결합 있는 원자재일 뿐이다. 그러나 문헌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도

34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56항.

35 참조: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 q. 1, a. 8, ad 2.

‘본성의 보존’이란 문법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활한 몸은 육신의 성적 정체성을 그대로 지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자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는 여자로 남는다(154항). 영광스러운 변모(變貌)는 있으되 본성의 변조(變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부사를 현상 유지의 명령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문헌 자신이 의학과 기술이 여러 계층의 건강과 복지에 가져다준 이득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으며(47항), 인간 증강에 관해서도 그것을 일괄하여 단죄하는 대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한다(55항). ‘변화되지 않고’가 배제하는 것은 치유와 돌봄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를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 교체를 도덕적 당위로 삼는 태도이다. 경계선은 고치는 (혹은 치유하는) 일과 같아 치우는 일 사이에 그어진다.

이렇게 읽으면 두 부사는 하나의 동일한 실패를 두 방향에서 드러낸다. 인간은 자신을 무한 속에 녹여 넣음으로써든(혼합), 자신을 다른 무엇으로 만들어 냄으로써든(변화), 자기 힘으로 무한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길에서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문헌이 제시하는 참된 신화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앞서 본 147항이 말하듯이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는 일은 인간을 흡수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두 자유의 만남이며, “하느님께서 신화(divinizza)하시는 바로 그때에 인간은 인간화(umanizza)하는 것이다”(147항).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신화는 인간을 보존하고, 인간이 시도하는 자기신격화는 인간을 소모한다.

3. 분리와 나눔: 탈신체화와 인류의 분열

칼케돈의 둘째 쌍이 겨냥한 것은 분리의 오류였다. QVH가 트

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읽어내는 또 하나의 위험도 바로 분리이다. 신영지주의 사조는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를 몸에서, 우주에서, 공동체에서, 역사에서 떼어 낸다(61항). 고대의 영지주의가 물질을 감옥으로 여기고 순수한 영의 구원을 꿈꾸었다면, 오늘날의 신영지주의는 생물학적 조건을 감옥으로 여기고 정보가 된 자아의 구원을 꿈꾼다. 문헌이 선택한 진단의 언어가 다름 아닌 분리(separazione)라는 사실은, 칼케돈의 둘째 쌍이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리는 먼저 몸을 향한다. 문헌에 따르면, 정보 혁명 안에서 “자기의식마저, 인간의 삶보다 내구성이 강한 디지털 매체로 이전하여 알고리즘에 따라 조직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46항). 이른바 정신 업로드의 꿈이다. 이 꿈이 몸 없는 얇 위에 세워져 있음은 문헌이 41항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켜야 할 ‘인간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지워 버림으로써 주체 자체를 해체하는 데까지 이른다(15항).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몸을 벗어나는 데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길이다.

물론 ‘분리되지 않고’(ἀδιαίρετος)라는 칼케돈의 부사가 일차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지 영혼과 몸의 결합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결합은 전통 안에서 처음부터 서로 유비적으로 묶여 이해되어 왔다. 교회는 위격적 일치라는 유례없는 결합을 설명해야 했을 때 영혼과 몸의 일치를 유비로 삼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를 정식으로 남겼다. “이성적 영혼과 육신이 한 인간이듯이, 하느님과 인간이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³⁶ 이러한 구도 안에서 QVH

36 「아타나시우스 신경」(Symbolum “Quicumque”), DH 76: “Nam sicut anima rationalis et caro unus est homo, ita Deus et homo unus est Christus.” 이 신경은 전통적으로 아타나시우스에게 귀

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인간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보증하는 것은 질료를 하나의 살아 있는 몸으로 통일하고 조직하는 형상(forma)으로서의 불멸의 영혼이며(62항), 그렇기에 “몸은 인격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다(134항). 영혼과 몸의 일치가 인간의 형상 자체라면, 그 일치를 풀어 버리겠다는 약속은 분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 경계 앞에서 정신 업로드의 약속은 자기모순으로 드러난다. 말씀과 육신이 한번 결합한 뒤에는 다시 둘로 갈라 낼 수 없듯이, 인간은 낡으면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릇에 잠시 담긴 영이 아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47항 참조), 몸에서 분리되어 살아남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분리되는 것은 몸만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도 같은 운명을 겪는다. 문헌에 따르면 디지털 세계가 양산하는 것은 “유대 없는 접촉, 실질적 연대 없는 기능적 관계”이며(42항),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 간다. 오늘의 지배적인 문화는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트랜스휴머니즘은, 그리고 포스트휴머니즘은 더더욱,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자녀라는 사실을 잊는다(86항). 자기 자신을 생산하려는 꿈은, 자신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기억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목현장이 가르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 주지 않고서는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으며”,³⁷ 의존과 취약함은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모든 인간 경험의 구성 요소이다(118항).

속되어 왔으나 5세기 라틴 서방에서 성립한 것으로, 영혼-몸의 일치를 위격적 일치의 유비로 사용하는 교부 전통을 정식화하여 보여준다.

37 사목현장 24항.

분리의 논리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나뉘’이 된다. 문헌은 이 사조들의 사회적 귀결을 묻는 대목에서 가장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이러한 인간관은 “불멸에 이르도록 강화된 우월한 형태의 인류와, 원시적이고 전(前)기술적이며 중국에는 멸종할 운명에 놓인 인류 사이의 분리를 주장하기에 이를 수 있다”(59항). 누가 어느 쪽에 속할지를 무엇이 정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 결정의 권한을 누가 쥔 것인지는 더욱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 전망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다. 출산은 생명의 전달이기를 그치고 유전적으로 완성된 개체를 기획하는 일이 되며, 부부 사랑의 생산성과 가족의 정서적 유대는 시아에서 사라진다(59항).

이 나뉘는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문헌은 트랜스휴머니즘의 기획이, 고통받는 인류를 위한 일상의 투쟁으로부터 외려 자원과 힘을 빼돌리는 일종의 ‘주의 분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63항),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선을 가난한 이들에게로 돌린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기술 발전 앞에서, 가장 약한 이들은 “폐기물, ‘부수적 피해’가 되어 무자비하게 쓸려 나갈 위험”에 놓여 있다(164항). 강화된 인류와 버려진 인류의 나뉘는, 기술의 혜택에서 배제된 이들의 현실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나뉘지 않고’(ἀχωρίστως)를 이 전망 앞에 세우면, 사목헌장 22항의 한 구절이 새로운 무게를 얻는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어느 모로 결합시키셨다.” 말씀이 수용하신 것은 특정한 집단의 인간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함께 지닌 하나의 인간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초월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며, 일부 인류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인류가 “보편적 형제애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딸의

정체성을” 빚어 가는 인류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128항). 인류를 우월한 부분과 폐기될 부분으로 가르는 기획은 불의할 뿐 아니라, 애초에 초월이라 불릴 수도 없다. 절반의 인류를 폐기하면서 이루어지는 초월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분리와 나뉘는 배제가, 개인이 공동체 속에 용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헌은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을 없애지 않은 채, “인간 공동체는 개인을 흡수하여 그 자율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 인격과 공동체의 관계는 전체와 또 다른 전체의 관계”임을 확인한다(155항).³⁸ 공동체와의 결합을 말하는 자리에서도 문헌은 개인의 보존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합과 보존이라는 두 요구는 어떻게 하나의 관계 안에서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가. 문헌은 그 근거를 삼위일체의 생명에서 찾는다(132항).

4. 칼케돈 문법에서 삼위일체적 논리로

앞 절의 끝에서 남겨 둔 물음에 대하여, 문헌은 4장에서 인간의 조건을 이루는 ‘양극적 긴장들’(tensioni polari)을 다루면서 답한다. 문헌에 따르면 인간의 조건은 제거할 수 없는 긴장들로 짜여 있다. 물질과 영, 남자와 여자, 개인과 공동체, 유한과 무한이 그것이다(134-138항). 이 긴장들은 병이 아니라 피조물의 구조이며, 따라서 문제는 긴장 자체가 아니라 긴장을 없애려는 시도에 있다. 한쪽 극을 지워 버리는 일원론이든, 두 극을 맞세우기만 하는 이원론이든 마찬가지이다(132항).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유한을 지우고(불멸의 기획), 몸을 지우고(정신 업로드), 공동체

38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53항.

를 지우는(개인주의) 방식으로, 이들은 긴장을 살아내는 대신 긴장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긴장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내는 길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QVH가 이 물음에 답하는 대목은 문헌 전체에서 가장 밀도 높은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 극성들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 … 우리는 궁극적으로, 피조물에 반영되어 있는 삼위일체적 생명의 리듬 자체로 소급된다. 이 리듬 덕분에 둘 사이의 관계는 자기 안에 닫히지도 않고 타자성을 하나 안으로 재흡수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넘치고 고갈되지 않는 제삼자 안에서의 완성을 향하여 열린다”(132항). 이 문장의 구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의 두 부정, 곧 자기 안에 닫히지 않는다는 것과 타자성을 재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칼케돈의 두 부사 쌍이 배제한 것과 정확히 같다. 문헌은 한 문장 안에서 분리의 배제와 혼합의 배제를 되풀이한 다음, 칼케돈 정식에는 없던 셋째 마디를 덧붙인다. 제삼자를 향한 열림이 그것이다.

칼케돈 정식은 두 본성의 관계를 다루는 이자(二者)의 문법이며, 경계 정식의 본성상 참된 결합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줄 뿐, 그 결합이 어째서 생산적인지, 결합 안에서 보존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QVH는 그 설명을 관계의 가장 깊은 근거, 곧 삼위일체의 생명에서 가져온다. 성부와 성자의 상호성 안에서는 “기원의 비대칭(성부만이 시작 없는 시작이시다)이 상호 증여의 무상성과 전체성이라는 대칭 안에서 주어지며”, 이 사랑은 위격이자 선물이신 성령의 부어짐 안에서 제자들에게 열린다(143항). 남자와 여자의 ‘둘의 일치’는 자기 안에 닫히지 않고 제삼자에게, 곧 새 생명에게 열릴 때 생산적이 된다(136항). 성찬의 친교 안에서 인격과 공동체가 서로 맞 세워지지 않고 서로를 부르는 순환은 “삼위일체 신비의

내부로부터만 합당한 표현을 얻는다”(156항).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단히지도 않을 수 있는 까닭을, 문헌은 시종 같은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적 근거는 엄밀히 말해 칼케돈의 바깥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다. 위격적 일치 자체가 삼위일체 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헌이 말하듯이 성령께서는 잉태 때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부께서 주신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따라 빚으신다(144항). 칼케돈이 지킨 결합은 처음부터 성부를 향한, 성령 안에서의 결합이었다. 그러므로 칼케돈 문법에서 삼위일체적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문법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그 뿌리에 이르는 일이다.

여기에서 참된 초월과 자기신격화의 차이가 최종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자기신격화에는 제삼자가 없다. 선물도 없고, 넘침도 없으며, 자기와 자기의 강화된 판본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문헌이 말하는 신화(神化)는 삼위일체적 관계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람의 아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긴장들이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분”이시며, 세례받은 이들은 성령의 선물로 그 충만에 참여한다(161항). 이때 은총은 긴장을 제거하지 않고, “치유하는 동시에 들어 높이는” 방식으로 긴장을 살게 하며(129항), 성령과 말씀의 선물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협력 안에서 싹튼다(74항).³⁹ 문헌이 말하는 은총은 인간을 보존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부사가 초월의 그릇된 길들을 가려내었다면, 삼위일체적 논리는 참된 길이 서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

39 그러므로 문헌이 인간을 ‘지켜야 할 선물’로 보는 데 치우쳐 ‘싹틔워야 할 씨앗(*seme da far germogliare*)’의 신화를 곁여하고 있다는 초기 논평의 비판(P. Gamberini, “Quo vadis, humanitas? Ubi est Teilhard?”)은, 74항이 선물의 작용에 선택한 동사가 바로 ‘싹트다’(*germogliare*)라는 사실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

V. 결론

QVH를 칼케돈의 네 부정 부사로 읽는 동안 확인된 것은, 문헌이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앞에서 수행하는 식별이 이 부사들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칼케돈의 부정은 부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의회가 혼합과 분리를 물리친 것은 “인성이 신성의 차원에까지 올림 받았다”는 긍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QVH의 식별도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헌은 초월의 욕망을 단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욕망을 인간 본성에 새겨진 것으로 긍정적인 다음, 그 욕망이 향할 곳이 이미 열려 있다고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새로움이 이미 앞질러 통합하지 않은 ‘트랜스’(trans)나 ‘포스트’(post)란 있을 수 없다”(150항). 부정의 형식 아래에서 이 문헌이 끝내 수행하는 것은 선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트랜스휴머니즘에 맞세우는 것은 더 작은 욕망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이 기술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교는 신화(theosis)라는 이름으로 이미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그 값이다. 자기신격화는 인간 자신을 재료로 지불하게 하지만, 신화는 선물로 주어지기에 인간을 보존한다(147항). 네 부정 부사가 오늘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이, 곧 인간을 소모하는 초월과 인간을 완성하는 초월 사이의 차이다. 그러므로 이 문법은 자신을 넘어서려는 인간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으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넘어서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문헌은 이 물음에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주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류가 어디로 가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잃지 않고 넘어서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열려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천오백 년 전에 세워진 네 부정 부사를 오늘의 물음 앞에서 다시 읽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교회 문헌

국제신학위원회, 「신학, 그리스도론, 인간학」(Teologia, cristologia, antropologia, 1982).

국제신학위원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humanitas?, 2026).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

신앙교리성, 서한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Placuit Deo, 20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H. Denzinger,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이성효 외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 기타 문헌

김민섭·조동원, 「칼케돈 신경의 인간학적 재해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을 중심으로」, 『인간연구』58(2026), 137~178쪽.

노성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신학전망』, 147(2004), 163~190쪽.

백충현, 「포스트휴머니즘의 시대에서의 삼위일체」, 『한국조직신학논총』, 57(2019), 171~199쪽.

이용주,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신학적-비판적 고찰: 신학적 인간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2019), 293~324쪽.

조동원,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고 구원되며 완성된 인간: 루이스 라다리아의 ‘그리스도론’ 인간학」, 『인간연구』, 41(2020), 235~246쪽.

- A. Amato, 『예수 그리스도』, 김관희 옮김,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 P. Camelot, 『에페소·칼케돈 공의회』, 황치현 옮김,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0.
- O. González, 『그리스도론: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윤주현 옮김, 가톨릭출판사, 2023.
- A. Grillmeier, 『교부들의 그리스도론』, 김형수 외 옮김, 가톨릭출판사, 2023.
- W. Kasper, 『예수 그리스도』, 박상래 옮김, 분도출판사, 2000.
- K. Rahner · W. Thüsing, 『그리스도론: 조직신학적 및 주석신학적 탐구』, 조규만 ·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 K. Schatz,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2005.
- Begasse de Dhaem, A., “Christologie et sotériologie de Gaudium et spes 22: Un modèle de théologie unifiée,” *Gregorianum*, 95/1(2014), pp.5~21.
- Burdett, M., *Eschatology and the Technological Future*, London: Routledge, 2015.
- Cole-Turner, R. (ed.), *Transhumanism and Transcendence: Christian Hope in an Age of Technological Enhancement*,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1.
- Cole-Turner, R., “Theosis and Human Enhancement,” *Theology and Science*, 16/3(2018), pp.330~342.
- Daly, T. T. W., “Chasing Methuselah: Transhumanism and Christian Theosis in Critical Perspective,” in R. Cole-Turner (ed.), *Transhumanism and Transcendence*, pp.131~144.
- Galli, C. M., “La divinizzazione, piena umanizzazione in Cristo,” *L'Osservatore Romano*, 2026.3.30.
- Gamberini, P., “Quo vadis, humanitas? Ubi est Teilhard?,” *SettimanaNews*, 2026.3.23.
- Huetter, R., “La vera posta in gioco,” *L'Osservatore Romano*, 2026.3.7.
- Ladaria, L., *Antropologia teologica*, Roma: GBP, 2011.
- _____, *Jesucristo, salvación de todos*, Madrid: San Pablo, 2007.
- Peters, T., “The Soul of Trans-Human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44/4(2005), pp.381~395.
- Xavier, J., “Theological Anthropology of Gaudium et Spes and Fundamental Theology,” *Gregorianum*, 91/1(2010), pp.128~130.



■ 이 논문은 2026년 국제신학위원회가 발표한 문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를 칼케돈 신경의 네 부정 부사를 해석학적 열쇠로 삼아 분석한다. 이 문헌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제시하는 인간 초월의 기획을 평가하면서, 그 초월이 인간을 보존하는가 아니면 대체하고 폐기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필자는 이 기준이 칼케돈 공의회가 위격적 일치에 적용한 기준과 형식상 동일함을 밝히고, 혼합, 변화, 분리, 나뉘는 네 부사가 각각 자기신격화, 본성의 재설계, 탈신체화, 인류의 분열이라는 오늘의 위험을 식별하는 규범적 문법으로 기능함을 보인다. 나아가 이 문법이 문헌 안에서 삼위일체적 관계의 논리로 완성됨을 논증한다. 이로써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 1965년의 사목헌장 22항, 2026년의 이 문헌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론적 인간학의 계보가 드러난다.

주제어: 국제신학위원회, 인류여 어디로 가는가, 칼케돈 신경,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신화(神化), 신학적 인간학, 인간 초월



Chalcedonian Grammar in the Age of Transhumanism: On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s *Quo vadis, humanitas?*

Antonio Dong-Won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n Campus)

■ This article interprets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s *Quo vadis, humanitas?* based on the four negative adverbs from the Chalcedonian Definition. The document evaluates the transhumanist and posthumanist projects of human self-transcendence according to a single criterion — namely, whether such transcendence preserves the human being or replaces/abolishes it. It is posited that this criterion is formally identical to the criterion Chalcedon applied to the hypostatic union. The pairs “without confusion / without change” and “without division / without separation” serve as a normative grammar for discerning self-divinization and the redesign of nature and disembodiment and the division of humanity, respectively. This grammar is completed within the document by a trinitarian logic of relation, disclosing a Christological lineage running from Chalcedon (451)

through *Gaudium et Spes* 22 (1965) to the present document.

Keywords: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Quo vadis humanitas, Chalcedonian Definition, transhumanism, posthumanism, deification (theosis), theological anthropology, human transcendence

- ◎ 투고 접수 2026. 07. 05.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10.